

<2016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·운영 사업> 최종 심의평

- 심사일정
 - 1차 심의 : 2016. 7. 28(목) 10:00 ~ 17:00
 - 현장점검 : 2016. 8. 3(수) ~ 8. 12(금)
 - 2차 심의 : 2016. 8. 18(목) 10:00 ~ 14:30
 - 조건부 선정 재심의 : 2016. 9. 6(화) ~ 8(목)
- 심사위원 : 김영현(위원장), 신호섭, 이재준, 홍보라 (총 4인)

지난해에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작은 미술관 조성·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예술인과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괄목할 정도로 고조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이번 작은미술관 사업 공모에는 총 11개 단체가 신청하여, 다음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. 1차 심의(7.28.)에서 8개 단체를 선정한 뒤,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규 조성사업 대상지를 현장방문 실사(8.3~8.12.) 하였습니다. 이어서 2차 심의(8.18.)를 통해 모든 단체의 보완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, 조건부 선정사업에 대한 재심의(9.6~9.8.)를 거쳐 최종 8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.

단체들의 제안 내용은 지역의 문화 소외지에 대한 활성화 계획과 목적을 비추어보아 본 사업의 당위성과 부합하였으나, 서면검토, 질의응답 등 심의과정 중에서 나타난 사업기획과 예산계획의 구체성 결여, 공간 활용의 적합성 미흡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으며, 특히 본 사업의 중점이자 미술관으로서의 특화기능인 기획·전시, 유희 공간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가 크게 벗어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되어 아쉽습니다.

심의위원들 개별적으로 자신의 정성평가를 뒤로 하고 토론과 객관적 비교를 통해 심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그 결과가 전년도에 이어 지역의 고른 안배를 가져와 치우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. 제안해주신 단체와 관계자 분들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2016년 9월

심사위원장 김 영 현

심사위원 신호섭, 이재준, 홍보라 일동